社 說

혁명 정신 계승하고 새롭게 되새겨야

—4·19 혁명을 기념하며

4월은 민주의 넋들이 고이 가신 달이다. 지난 60년 겉은 달과 낡, 고교생 故김주열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 마산 세관부두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래서 억압과 수탈만 받은, 그 조용한 분노만을 눈빛에 담은 민중과 학생이 4·18, 4·19 양일을 기해 노도처럼 일어난 것이 4·19혁명이다.

4·19는 땀과 피의 산물이다. '피의 화요일'의 사망자는 1백 83명, 부상자가 6천 2백 59명이었으며, 참가인원이 십만을 넘었다. 그 가운데는 독재의 총과 칼에 맞서 산화한 우리학교 법대 출신인 故 이기태 선배가 있으며, 열렬히 투쟁한 경제학과 故이수병 선생도 있다.

민주동문회에서는 故이수병선생의 넋과 생전의 뜻을 기리기 위해, 평전 '암장' 출판사업, 매년 정기일에 추모행사, 기념사업기금조성 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이 땅이 뉘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라는 유명한 통일구호를 남길 만큼, 우리의 소원 통일에 앞장서 활약하다가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다.

4월은 민주의 넋들을 기리는 달이다. 그 넋들의 삶이 치열해서, 그 죽음이 숭고해서 기리는 것이다. 자유의 몫에는, 민주의 몫에는, 통일의 몫에는 '피의 화요일'같은 피의 몫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으면 지금 50대인 그분들의 미완의 혁명에 대해, 남은 뜻을 기리며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고 변혁하려는 것이다.

그 몫을 찾는 일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혁명 주간에 검은 리본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진혼제로 그 혼을 위로하는 따위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4·19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관앞 민주광장을 향해 그 날을 말하는 '4월 학생 혁명 기념탑'이다. 신입생이나 2학년 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으며, 그 존재마저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있다. 또한 '4월 학생 혁명 기념탑' 주변은 더욱 한심하다. 밤에는 연인들의 장소로, 어떤날은 술판과 고성방가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 있다. 더우기 안타까운 것은 4월 19일 하루 이외에 한 번도 묵념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되고 만 것이다.

4·19 혁명은 선배들의 몫이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하고 새롭게 되새겨야 할 역사적 책임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임을 잊지 말자.

'화합의 힘' 절실히 요구돼

—도약위한 개혁의 시점에서

요사이 사회전반에 개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개혁'이라는 말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의 성과는 거의 없다. 그만큼 타성화된 과거의 관습은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개혁을 우리학교도 하겠다고 했다.

95년과 96년에 각 캠퍼스 별로 받을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99년의 개교 50주년을 대비해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그를 통한 세계사를 이끌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학교측의 개혁의 의지는 집단이기주의와 무관심속에 그 결의가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된다.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전반적인 우리학교의 모습은 작년과 그리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교과과정 개편과 교수의 강의시간 조절조차 88년 종합발전계획 발표 후의 교과과정 개편과정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학교의 개혁과 발전안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우리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우선 첫번째로는 주체인 학교 당국을 들 수 있다.

일례로 개교 45주년 기념일이 불과 5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기념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해야 할 것이다. 동문초대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라고는 하나 그외의 학생과 동문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행사를 5주안에 준비하기는 벅찬 일이다. 기념사업은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일체감과 동료의식이 더욱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17일 있었던 발전계획안 설명회에 이은 후속계획들, 예를 들면 발전안에 대한 공청회나 2차 설명회 등의 시기도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학교측에서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그 '개혁'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또 자신이 속한 집단에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 집단을 움직이는 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변화는 어느 한쪽에서 추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흔히들 '국적은 바꿀수 있어도 학적은 못바꾼다'고 한다.

학교는 지신이 다닐때에만 중요한, 단지 취업을 위한 졸업장을 따거나, 생계를 위한 임금을 받아가는 곳은 아니다.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학교의 발전과 개혁을 이루었을때 느낄 희열과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그 희열은 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버리고 애정과 진지함을 가질때 학교는 개혁하지 않으려해도 저절로 개혁이 될 것이다.

전학대회 '정파대리인'들의 논쟁의 장

심층취재

계속되는 불협화음 학생운동위기 자초할수도

인권복지위원회장 선출방법이 간선제로 표결되자 지난 6일 전학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인복위장 선출 간선제

이날 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인복위장 선출 방법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교과과정 개편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 제25대 총학생회 회계 결산 등이 남아 있었으나 인복위장 선거방법 결정 후 대의원들이 대거 빠져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들에 대한 논의 없이 대회는 끝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전학대회는 마쳤지만 전학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의 목소리들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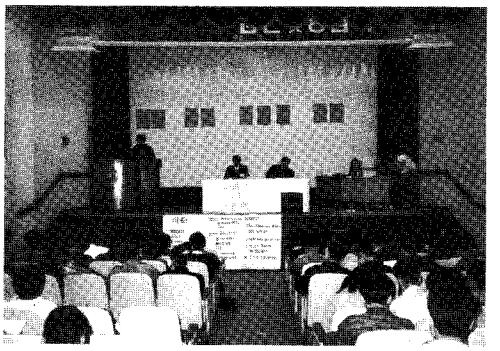
먼저 지적되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교육개방과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앞두고 학교측은 일련의 개혁안을 내놓고 대외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의 입장이나 대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복위에 대해서도 그렇다. 선출방법만 논의된 채 예초 문제시 되고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인복위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간과되어 버렸다. "사실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많이 일고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복위에 대한 감사와 공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가 필요한 논제였다.

전학대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그 다음의 것은 말 그대로 전체학생 대표들의 대회가 되어야 할 전학대회가 정파간의 이해 다툼으로 그 위상이 흐려져 버렸다는 것이다. 올해 학생회의 총노선을 수립해야 할 전학대회가 사실상 각 정파간의 토론장이 되어 버렸다.

중앙운영위원회로서의 위상보다 각 정파의 이익이 우선시 돼 결국 단일안을 내지 못한 중앙운영위 간부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전학대회 때도 중앙운영위의 단결되지 못한 모습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중앙운영위는 다음 전학대회 때는 꼭 단일안을 올리겠다는 결의와 사과를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이번 6일에 있었던 전학대회 때도 전체 학생 대표들의 토론장이었다기 보다 사실상 중앙운영위들의 토론장이었다.



◇지난 3월 28일과 6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해다툼으로 위상저하

한편 충분한 인식이나 논리없는 의사진행 발언도 문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첫번째 전학대회에서 인복위장 직선제에 대한 회칙개정 작업이 부진한데 대해 한 대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총학생회장은 과연 인복위장을 직선으로 뽑을 의지가 있느냐"고 쇠된 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때 총학생회장은 "직선제는 나의 의지이다. 만약 회칙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는 공약이행 차원에서 총학생회장의 권한과 의지로서 직선제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결국 투표결과 직선제는 무산되었고 그 다음 회의때 있었던 투표에서 그 대의원은 직선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전학대회 때는 유난히 회의가 전행되어 가는 모양이 답답하다는 의사 진행발언이 많았다.

몇몇 대의원들이 "답답하다. 지난 전학대회 때와 돌아가는 모양이 똑같다"고 비판을 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발언한 대의원들 자신은 지난 전학대회와 꼭 같은 행동들을 답습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엉뚱한 게 문제시돼 회의에 진척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대의원도 사실상 회의를 지지부진하게 이끈 장본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대의원은 병으로 휴양하고 있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가하고 "총학생회장은 사회자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부총학생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참가했던 한 학생은 같은 학생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느낀다고 했다.

난무했던 인신 공격, 거의 고함에 가까웠던 발언들 그리고 사투를 벌였던 안건이 처리되자 우루루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들은 거성 정치판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난무했던 인신 공격, 거의 고함에 가까웠던 발언들 그리고 사투를 벌였던 안건이 처리되자 우루루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들은 거성 정치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두차례에 걸친 전학대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던졌던 일련의 질문이나 문제제기들은 질문을 위한 질문,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파의 이해를 대변한 '머릿수로 밀어부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중간에 퇴장한 한 대의원은 후에 "정파간 다툼에 다수 대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되는 것 같았고 대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판이 짜여지고 있었다"며 퇴장했던 이유를 말했다.

대표자의 자세 필요

인복위장 선출방법이 간선제로 결정나자 물러 나가는 대의원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항간에서 떠도는 말대로 대의원들이 인복위장 선출방법을 문제 삼았던 것은 어떤 식으로 인복위장을 선출해야 자기 정파에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소위 '땅따먹기'에 몰두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날 전학대회에 참관했던 한 학생은 '대표자와 대리인의 차이'란 표현을 썼다. 자신은 과연 학생 대표자의 모습을 보였는지 정파 대리인의 모습을 보였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차례의 전학대회에 참가하고 나온 대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이제 경희대의 학생운동은 자멸할 것이다"라는 비관이다.

중앙운영위 사이의 논쟁을 듣고 있으면 지금 우리학교 학생운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단대 학생회장들은 이렇게 말한다. "총학생회장의 말에 논리적으론 반박할 수 없지만 그 의견엔 반대한다"고. 그리고 총학생회 집행부는 "단대에서 총학생회의 사업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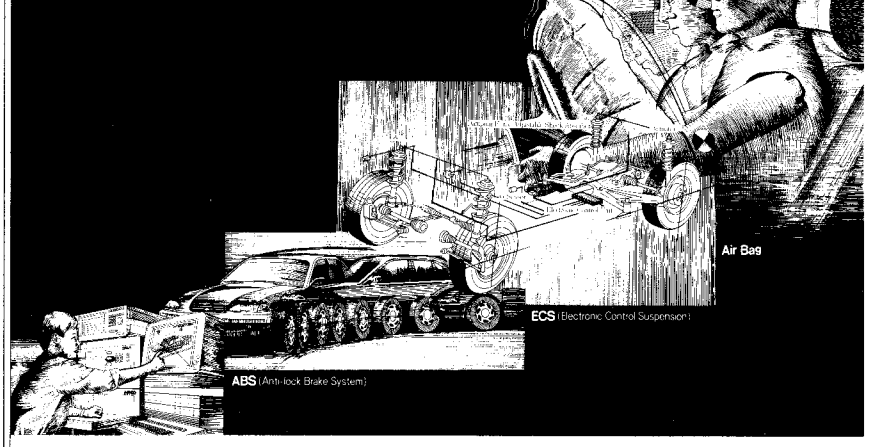
논리는 정연하나 학내 상황을 잘 이끌지 못하는 총학생회, 행동력은 있으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한 단대들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위협받는 것은 비단 노동자·농민의 권리만은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분민의 모습을 띤 정권에 원인을 두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세대 대학생 경향 운운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옳은 분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기는 그 내부의 원인에도 기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엄정미 記者)

인복위에만 초점…많은 것 놓쳐

논리없는 비판으로 흐려진 대회위상

HALLA 자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MANDO



자동차부품의 메카트로닉스—
만도가 실현합니다

안전과 편리를 더해주는 첨단기술—
고객을 중시하는 만도의 기술정신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의 명성을 쌓아온 만도기계—
이제 만도는 기계기술에 전자기술을 결합시킨
메카트로닉스화로 안전과 편리를 더해주는
첨단 자동차부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만도의 첨단기술은 메카트로닉스의 결정체인
ABS와 ECS(전자제어 서스펜션), Air Bag,
TCS(출발시의 미끄럼 방지장치) 등의
전자화된 자동차부품뿐 아니라,
공작기계와 로보트 등의 산업기계 분야,
산업용냉동기, 에어컨, 온풍기 등의 공조기기 분야에서도
그 기술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만도기계(주)